

광주·전남 빈집 1만805동...대책 시급

지난해 광주 2406·전남 8399동...우범지대화 등 우려 사유재산 행정력 강제 어려움...매입 활용 예산도 부족

광주와 전남지역에 범죄·재난 우려가 높은 빈집이 1만805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행정당국은 사유재산인 주택에 행정력을 강제하기 어렵고, 매입을 통한 활용 역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내 비어있거나 버려진 주택은 2406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 별로는 남구가 611동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513동, 서구 479동, 북구 449동, 광산구 354동 순이었다.

전남지역도 지난해 12월 기준 방치된 빈집이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8399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 별로는 화순 1266동을 비롯해 함평 726동, 신안 708동, 해남 656동, 여수 645동, 영광 546동, 나주 421동, 진도 420동 순이었다.

이어 보성·고흥·완도·강진·무안·담양·순천은 주택 200동 이상, 장흥·영암·구례·장성·광양·곡성지역도 100동 안팎의 주택이 거주자 없이 방치된 상태다.

방치된 빈집은 탈선과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악취와 미관 훼손 등 주민 불편을 일으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당국은 철거·공간 재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철거가 어려운 데다 예산 문제로 매입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4억 원을 들여 주택 600동을 철거한 데 그쳤다. 매입사업에는 지난해 2013년부터 예산 48억 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까지 22동의 주택을 사들이는 데 그쳤다.

시는 올해 시비 8억 원을 들여 1년 이상 전기·상수도 미사용주택 6254동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 관리실태·소유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빈집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확보 재원에 따라 빈집 정비에 나선다.

농·어촌 지역 공동화 현상에 직면한 전남도는 매년 1000동 안팎의 공·폐가를 철거 또는 재입주 등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공·폐가 7606동이 정비됐다.

전남도는 지역 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빈집 정보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2년 이후 '전남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에 등재된 빈집은 843동에 불과하다. 지난해에 등재된 빈집은 237동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 2723동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도는 올해 15억55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빈집 1138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 우범지대 가능성, 미관 훼손정도 등을 고려해 대책이 시급한 빈집부터 정비하고 있다"면서 "정비가 안 된 빈집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재난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은홍·김정환 기자



봄기운 느끼며 달려요 24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스포츠투데이 2019 챌린지 레이스 달리기 참가자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다.

전남교육청, 허술한 인사행정 '도마'

시각장애 교사 원거리 배정·167명 미채용 등

전남도 교육청이 교원평가 인사를 단행하면서 시각장애 교사를 먼 거리에 배정하는가 하면 수급 상황을 잘못 예측해 160여 명의 미발령 교사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인사행정

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4일 "도교육청의 미숙한 인사로 시각장애 교사가 원거리 배정되고 교

원 수급 예측을 잘못해 100명이 넘는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생기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지부는 "시각장애로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한 교사가 여러 차례 요청에도 불구, 거리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될 학교로 배치됐다"며 "장애인 인권의식이 없었다

김정환 기자

'최순실 게이트 폭로' 노승일씨 광주 자택 공사장 화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했던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노승일

(43)씨가 지던 집에서 불이 났다. 23일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16분께 광주 광산구 광산동 노씨 소유의 주택 개축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5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인근 주택으로까지 번져 건물 2개 동 120㎡를 모두 태우고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노씨는 지난해 7월말 광주에 정착하기 위해 폐가를 매입,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전기적 요인에 의해 난불로 추정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술값·주차요금 시비' 30대 2명 잇단 입건

광주에서 술값·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꽤 행패를 부린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A(36)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에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이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을 때 계산이 잘못됐다며 항의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전 1시20분께 서구 치평동 모 노래방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등 25분 간 영업을 방해한 B(35)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술에 취한 B씨는 일행들과 소란을 피운 뒤 귀가를 권유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4시5분께 서구 한 유료주차장에서는 C(39)씨가 관리원 D(59)씨를 밀고 팔뚝을 1차례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잠시 주차했는데 주차요금 1000원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D씨와 승강기를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에서 빚어진 갈등인 만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국인, 음주·뺑소니·무면허 사고 5명 사상

신안에서 길을 걷던 중국인 5명을 차량으로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태국 출신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23일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도주차량 등)로 태국인 A(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20분께 신안 지은면의 한 마을 앞 도로에서 1t 트럭으로 길을 걷던 중국인 B씨 등 5명을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으며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3년전 한국에 들어왔으며 여권이 만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증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부상자는 중국 출신으로 이날 밤에서 농작물(대파) 수확작업을 마친 뒤 숙소로 가던 중에 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만에 인근의 파출소로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경찰 신속한 공조 경남 김해 강도범 검거

경남 김해 PC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순천에서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23일 PC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A(50)씨를 붙잡아 김해의 한 경찰서에 인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김해의 한 PC방에 들어가 흥기로 B(61·여)씨를 위협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은 용의자 A씨가 차량을 타고 광양을 지나 순천방면으로 도주 중이라는 김해 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길목에 강력팀 형사를 배치했으며 차량이 보이자 곧바로 붙잡았다.

순천=김승호 기자

전 여친 감금 뒤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검거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부터 자정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서구 중앙동까지 전 여자친구 B(27·여)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에서 차량을 5km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